



## S-미술아카데미

본회(회장 권영걸/69응미)가 2024년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S-미술아카데미'가 수준 높은 미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미술아카데미는 본회 산하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한다. 오는 3월부터 미술실기강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제로 운영되며, 각 학기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특징은 수강생 개개인에 맞춘 소수 정예 교육 방식이다. 같은 수업 안에서도 수강생 한 명 한 명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강사가 개별 지도를 진행한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강생이 원하는 교육 방향에 맞춰 일대일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미술을 접하는 입문자부터 심화 과정을 원하는 경험자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진 역시 S-미술아카데미의 강점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전문 교수, 작가, 강사진이 교육을 담당하며, 오랜 실전 경험과 교육 경력을 바탕으로 실기와 이론을 병행한 체계적인 수업을 제공한다. S-미술아카데미는 매 학기 수강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서양화, 한국화, 디지털드로잉, 사진, 이론 등 폭넓은 장르를 아우른다. 수업은 본회와 MOU를 체결한 백악미술관 2층에서 진행된다. 백악미술관은 1983년 일중 김충현 서예가가 후학을 위해 설립한 미술관이다. 현재 김현일(06동양) 동문이 관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본회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백악미술관에서 연 1회 수강생과 강사진의 작품



을 함께 선보이는 'S-미술아카데미전'을 개최한다. 수강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기념하고, 서로의 창작 여정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2025 S-미술아카데미전'은 2024년 한해동안 아카데미에서 제작된 수강생 작품과 지도 강사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다. 지난해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기실이 위치한 백악



미술관에서 개최되어, 56명의 작가가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2026 S-미술아카데미전은 오는 4월 2일부터 8일까지 백악미술관 3층에서 개최된다. 2025년 한해동안 실기실에서 열정을 담아 제작한 작품들을 전문적인 전시공간에서 선보임으로써 수강생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들이 교육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편 겨울특강이 지난 1월 5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진행 중이며, 오는 3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12주간 봄학기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봄학기는 △유화 초중급(강사 안성규) △DSLR-미러리스 사진클래스(강사 이필두)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강사 조명식) △기초 소묘 드로잉: 어반드로잉 인물창작(강사 김호준)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강사 이영훈)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강사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강사 박혜령) △현대수묵화: 풍경·인물·정물·문인화 창작(강사 조래원) △자유크로키: 누드 △포토샵 배우기(강사 이영훈) 등 총 10개 강좌로 구성된다. 또한 3월 21일에는 프레스코: 석회벽화·템페라 원데이클래스(강사 선우향)도 진행된다. 현재 수강생 모집 중이며 수강신청은 문자(010-8605-8065)로 접수하고 있다.

본회소식



나오시마 미술여행

본회는 오는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2박 3일간 '자연과 예술의 섬-나오시마 미술여행'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미술여행은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일본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인근 다카마쓰도 함께 둘러보는 일정이다. 나오시마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지중미술관, 베네세하우스 등과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이 자리한 예술의 섬으로, 자연 경관 속에 현대미술 작품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여행 일정은 1일차 인천공항 출국 후 다카마쓰 도착 및 현지 투어, 2일차 나오시마 미술관 투어, 3일차 다카마쓰 투어 후 귀국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여행 참가신청은 마감되었으며 본회 회원 외에도 가족 및 지인 등 20명이 참가한다. 본회는 이번 여행에서 참가자들이 얻은 예술적 영감을 바탕으로 향후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장동정

세종연구원 신청사 이전

본회 권영걸 회장이 원장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연구원이 오는 3월 대평동 신청사로 전면 이전하여 운영된다. 대평동 신청사는 'BRT(대평동) 정류장에서 하차 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지난 2월 4일부터 세종연구원은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2026년 상반기 교육과정' 학습자 모집을 시작했다. 세종시민대학은 세종연구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민의 배움터로, 이번 상반기에는 총 6개분야 37개의 다채로운 강좌가 마련되었다. 권회장은 "대평동 이전을 계기로 접근성과 교육 환경을 동시에 개선했다"며 "내실 있는 강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 소확행아트컬렉션**  
본회가 주최하고 본회 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에서 주관하는 '2026 소확행아트컬렉션'은 동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작품소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이다. 2023년부터 시작되어 소품 및 특별할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적은 투자로 작품소장의 기회를 제공해 사전예약 및 오픈런이 이루어지는 등 미술애호가들의 호응이 큰 전시이다.

**2026 베리타스미술상전**  
본회가 주최하고 본회 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에서 주관하는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은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이다. 모교 졸업전시에서 선정한 8개 전공의 수상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한자리에서 집중조명하는 전시로서, 유망한 신진작가들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숨은예술가들 2026**  
본회가 주최하는 '숨은예술가들'은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타전공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위해 마련한 전시다. 올해로 네 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교육자, 의료인, 법조인, 음악가, 사업가, 건축가 등이 그동안 해온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표현을 선보인다. 역량이 뛰어난 경우 본회 명예회원으로 서 함께 창작활동을 이어가도록 기회도 제공한다.

모교소식

디자인과 김민수 교수 퇴임



모교 디자인과 디자인역사문화전공 김민수(79 응미) 교수가 지난 2월 퇴임했다. 김교수는 모교에서 2012년 신설한 디자인역사문화전공의 전공주임 교수를 역임했으며, 디자인 역사, 이론, 비평을 가르쳤다. 디자인역사문화전공은 디자인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 및 사회적 공공성에 기초한 주체적 디자인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디자인의 역사 및 문화적 맥락에 대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예과 저명학자 초청 특강 개최



모교 공예과가 영국 브라이튼대학교 (University of Brighton) 이윤아(Yunah Lee)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학교 74동 미술대학 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오늘, 영국의 공예·디자인 담론'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윤아 교수는 27년간 영국에서 공예·디자인 이론을 연구해온 학자로, 이날 강연에서 서구권 공예·디자인 담론의 최신 동향과 흐름을 소개했다.

이교수는 강연을 통해 영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공예와 디자인이 어떻게 정의되고 논의되는지, 그리고 최근 어떤 방향으로 담론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외 학계의 시각과 연구 동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특강은 모교 공예과와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공예과 재학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디자인과 이장섭 교수 연구팀, 국립중앙과학관 전시 개최

모교 디자인과 이장섭(97디자인) 교수 연구팀이 국립중앙과학관과 공동 기획한 전시 '기억을 먹을 수 있다면?'이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전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열린다. 본 전시는 "만약,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맛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과학 기술과 함께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는 전시로, 과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이 융합된 흥미로운 전시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임기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임기를 시작한 미술대학 학생회장 손예은입니다.

우선, 저희 학생회 [이음]을 믿고 지지해 주신 미술대학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반의 투표율을 넘기지 못하리라 생각했으나, 감사하게도 본투표의 마지막 날, 해가 지기도 전에 과반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학생회 [노트]가 쌓아온 학생 간의 신뢰가 그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노트]가 구축한 학생회 체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학생회 [이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출마를 선언하며 말씀드렸던 것은 단 한 가지, 미술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듣기 위해 저희가 직접 다가가겠다는 것입니다. 실기실 의사, 실기실 시간표 등,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도 쉽게 지나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 작은 청취부터 약속드린 공약 이행의 마무리까지, 차분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미대 동창회 선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옆에 있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은, 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학교에 나와 작업을 하며 그들의 예술 세계를 펼쳐내는 중입니다. 이들의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학생회 부원들과 함께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지켜봐 주십시오. 동창회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1대 미술대학 학생회 [이음] 학생회장 손예은



안녕하십니까. 미술대학 부학생회장 서현수입니다.

미술대학은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전공과 개성을 가진 우리가 같은 이름 아래 모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때로는 부딪히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와 창의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소통의 어려움과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저는 부회장으로서 그 사이를 잇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의견, 사소하다고 여겨져 지나쳐지기 쉬운 불편함까지도 놓치지 않고 듣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임기 동안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과정이 투명하고 태도가 성실한 학생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학우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서툰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학생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미술대학 동창회 선배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술대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덕분에, 저희는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배움과 창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쌓아오신 미술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잊지 않고, 그에 부끄럽지 않은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회는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며, 때로는 따끔한 조언을 보내주시는 학우 여러분과 선배님들이 있기에 학생회는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심과 기대에 성실한 실천으로 응답하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1대 미술대학 학생회 [이음] 부학생회장 서현수

서울대소식



서울대학교 국제처 출범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지난 1월 9일 국제처 출범식을 진행했다. 서울대학교는 기존 국제협력본부를 국제처로 개편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화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제처는 교육·연구·공헌·행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화의 실질적인 추진 체계로서,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제처는 기획부총장 산하 조직으로 재편되었으며, 국제협력기획과와 국제협력지원과의 2과 체제로 재정비됐다. 국제처는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 외국인 장학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구성원 지원, 글로벌 파트너십 플랫폼 확장, 글로벌 연구 초학제적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공헌 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화 전반을 총괄한다. 유홍림 총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화는 대학의 부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서울대의 모든 일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국제처가 대학 전체의 실질적인 국제화를 이끄는 중추적 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 새내기대학 개최

서울대학교는 지난 2월 2일 2026학년도 신입생 대상 '새내기대학'을 진행했다. 올해 행사는 2월 2일, 5일, 10일, 12일 총 네 차례로 운영되었으며, 차수별 약 750씩 총 3,000여명의 신입생이 참여했다. 오전 행사는 학교 소개 영상, 기관별 안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홍림 총장의 환영사와 졸업생 명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후 학사 제도와 수강신청, 공통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었으며 대학 생활 전반을 다루는 필수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었다. 오전 행사가 끝난 후, 오후부터 동기 및 선배들과 소통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팀 별 야외 프로그램과 학생 동아리 공연 등이 이어졌다.

교수 95% 성과연봉제 선택

지난해 9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표한 이후, 서울대교수 대부분이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교 교무과에 따르면, 정년이 보장된 교수(정교수 및 일부 부교수 등) 1534명 가운데 1467명(95.6%)이 성과연봉제를 택했다. 호봉제를 유지한 교수는 67명(4.4%)에 그쳤다. 성과연봉제는 이른바 '스타 교수' 영입과 성과 중심 보상 강화를 염두에 두고, 교수들이 성과연봉제와 호봉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성과연봉제는 교수 성과를 4개 등급(S·N1·N2·U)으로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24일 성과연봉제에 따른 성과급을 처음 지급했다. 근속 11~20년 교수는 전원이 성과연봉제를 선택했고, 근속 21년 이상 교수도 약 96%가 성과연봉제를 택했다. 제도 도입 이후 부교수의 정교수 승진 신청 비율은 46.9%로, 최근 처음 40%를 넘겼다.

'호라이즌 유럽' 과제 최종 선정

서울대학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인복 교수 연구팀이 유럽연합(EU)의 세계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과제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2025년 대한민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국내 대학이 거둔 첫 번째 과제 선정의 쾌거로, 유럽과의 연구 협력 강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컨소시엄은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네덜란드 바헤닝언 대학이 주관하며, 한국의 서울대를 비롯해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등 총 9개국 20개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서울대는 “이번 선정은 대한민국과 EU의 과학기술 교류협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유의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대 연구진이 호라이즌 유럽 등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헤리티지 라이브러리&라운지 개관



지난 2월 9일 중앙도서관에서 '서울대 헤리티지 라이브러리'와 '대신타이낸셜그룹 - 서울대 헤리티지 라운지' 개관식이 열렸다. 이번 개관은 1975년 건립된 본관과 2015년 건립된 관정관을 관통하는 1,500여 평 규모의 공간을 리모델링한 결과물이다.

중앙도서관은 서울대인의 학술 공간을 넘어 모두의 지적·문화적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비전으로 혁신적 공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개관과 함께 두 개의 기념전도 개막했다. 박완서 아카이브 조성 기념전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과 보이는 수장고 조성 기념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우리 모두의 서재》가 본관 4층 헤리티지 라이브러리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CES 2026 참여

서울대학교가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6'에 참가해 학내 연구 기반 기술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행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산학협력단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주도한 스타트업 공동관 '서울통합관'에 참여해 연구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학생 서포터스가 함께하는 현장 지원 체계를 운영했다. 교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기업 5개사가 선발돼 전시와 투자 미팅, 기술 검증 등 사업화 활동을 전개했다. 학생 서포터스 92명도 통역 가이드로 활약하며 현장을 지원했다.

서울대미술관 심상용 관장 강연



서울대미술관(관장 심상용)이 심상용 관장의 강연 <전시, 답 없이 질문하고, 대상 없이 열망하라>를 개최했다. 강연은 지난 2월 4일 서울대학교미술관 오디토리엄에서 진행됐다. 이번 강연에서 심상용 관장은 전시 기획의 본질과 철학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청중과 나눴다. 강연 제목이 시사하듯, 심 관장은 전시가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 열망을 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강연 후에는 안진국 미술비평가와 전성규 국립목포대 교수가 참여한 대담이 이어졌다. 대담에서는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동시대 미술과 전시의 역할, 그리고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한편 서울대미술관은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오류를 거니는 산책자>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급격하게 디지털화된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오류와 균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에 주목, 12명의 작가들이 디지털 시대에 발생한 왜곡과 불안, 소외의 징후들을 예술적 언어로 포착한다.

총동창회소식



서울대×한솔 외신산업 창업 경진대회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대학교 융합관에서 '제4회 서울대×한솔도시락 외식산업 창업 경진대회'가 열렸다. 본 행사는 한솔도시락 창업주 이영덕(69법학) 회장이 총동창회 산하 재단법인 관악회에 기부한 10억원을 재원으로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처음 기획되어 지난해 4회째를 맞았다. 외식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금까지 총 81명의 학생이 본선에 참여했다. 관악회의 재원으로 총 6팀에게 대상 7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 특별상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대상은 도시락 용기에 넣은 유지 기술을 적용해 식사의 품질과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개선한 '벤엔제리스'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김치의 고유한 가치에 치즈의 대중성을 결합한 글로벌 식품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치전' 팀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 우수상은 AI 기반 원클릭 마케팅 플랫폼 'MPilot', 장려상은 김밥 만들기 체험 매장 '민's 김밥', 특별상은 1인 가구를 위한 식재료 스마트 관리앱 'Fridge Guard'와 동네 마트 마감 상품 연동앱 '마감픽' 팀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는 상금과 함께 제안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 컨설팅 기회가 제공된다.

고 허남각 동문 유족 · 유흥수 동문 장학금 쾌척



고 허남각

유흥수

고 허남각(56상학) 삼양통상 회장 이름으로 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악회에 15억원의 기부금이 전달됐다. 허회장은 생전 장학빌딩 기금을 시작으로 특지 장학금을 설립, 15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 기부로 총 30억원을 출연하게

됐다. 이는 총동창회 기부자 가운데 임광수(48기계)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6월 허회장 별세 후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허회장이 평생 강조해 온 장학과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가 마지막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허회장은 생전 "교수와 학생, 동문이 함께 힘을 모아야 모교가 발전할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삼양통상 대표이사과 회장을 지낸 허회장은 퇴임 후에도 장학사업과 교육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한편, 2026년 새해 첫 기부자 유흥수(58법학) 전 일본대사는 지난 1월 7일 1억원을 기부하며 특지장학금을 신설, 매년 인문계열 1명, 이공계열 1명에게 연 500만원씩 졸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유동문은 경찰과 행정, 외교 현장을 거쳐 평생을 공직에 헌신해 왔다. 올해 아흔을 맞은 유동문은 "새해를 맞아 좋은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었다"며 "배움의 출발점이었던 서울대가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1000만원을 기부했던 유동문은 또한 자녀인 유지열(84외교), 유가영(86기약) 동문과 함께 기부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2026년도 정기총회 및 제28회 관악대상 시상식

일시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5시 30분

장소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2F)



2026 정기총회 및 제28회 관악대상 시상식

- 일 시 : 3월 27일(금) 오후 5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 소공동)
- 행사내용 :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등
- 참가범위 : 사전 신청 동문 500명 이내 (회비 납부자에 한함)
- 참가신청 : 3월 13일(금)까지 사전신청  
(성함,학과,입학연도,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 (우리은행 1005-401-137376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입금 시 성함/학과/입학연도 기재
- 참가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 전화 02-702-2233
- 협찬금 : 10만원 이상 (계좌는 참가비 계좌와 동일)  
- 입금 시 성함/학과/입학연도 기재  
- 협찬금 납부 시 정기총회 참가비 면제

3월 조찬포럼

- 일 시 : 3월 12일(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더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서울시청 앞)
- 참가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4월 수요특강

- 일 시 : 4월 1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 참가비 : 2만원 (간식 및 도서 제공)

4월 국토문화기행



- 일 시 : 4월 2일(목)
- 장 소 : 선교장고택 등 강릉 일대
- 참가비 : 5만원

5월 나눔가족음악회

- 일 시 : 5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잠실 롯데 콘서트홀

6월 조찬포럼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 더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 참가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6월 등산트래킹

- 일시 : 6월 18일(목) 오전 9시
- 산행지 : 인왕산(경북공역 3호선)
- 참가비 : 2만원 (오찬 제공)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1.16-2.13)

- 부회장회비 박혜경(78회화) 손희옥(68동양)
- 이 사 회비 박소영(73회화) 최명애(70회화) 최미영(70응미) 한석란(71조소)
- 일 반 회비 김경희(71동양) 김춘이(59응미) 박은민(06디자인)
- 평 생 회비 이순중(70응미)
- 후 원 금 황현수(74조소)=50만원 이민주(76회화)=40만원  
김홍규(83응미)=30만원
- 광고후원금 김복기(80회화)=50만원 정옥란(62응미)=30만원  
손희옥(68회화)=30만원 한울회(회장 안말환)=30만원  
김진경(82회화) 20만원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일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 단체 등 4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상화(53회화) 본인상



정상화 동문이 지난 1월 28일 별세했다. 정동문은 1953년 모교 회화과를 입학하여 1956년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 '한국청년작가4인전', 제2회 세계문화자유회초대전, 제4회 파리비엔날레, 제9회 상파울로비엔날레 등에 참여하였으며, 프랑스와 일본, 한국을 오가며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작업을 이어왔다. '들어내기'와 '메꾸기'라는 조형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단색조 추상화가로 자리매김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 2층

\*문의 02-877-8065

\* 평일 10~17시

2026 봄학기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3.9 ~ 5.29 \*공휴일 휴강 (보강 진행)

월	화	수	목	금	ONE DAY CLASS 3.21(토) 10:00-17:00  프레스코 석회벽화 템페라 선우향	
오전 10:00 - 13:00	기초소묘드로잉 어반드로잉 인물창작 김호준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 고급과정 조명식	유화 초·중급 안성규	현대 수묵화 풍경·인물·정물·문인화 창작 조래원		태블릿PC 디지털 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오후 14:00 - 17:00	자유 크로키 누드 강사 없음	포토샵 배우기 기초부터 활용까지 이영훈	DSLR·미러리스 사진 클래스 촬영·편집·출력까지 이필두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접수 기간  
2026.2.2(월)~2.25(수)

접수 방법  
접수: 010-8605-8065 문자  
입금: 301-0252-4434-51농협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 정원  
강좌별 15명  
\* 신청순 접수 / 복수신청 가능  
\* 10명 미만 폐강

수강료  
수강료 36만원 (12회)  
유화 45만원 (15회)  
자유크로키 20만원 (10회)  
\* 모델료 별도  
프레스코 15만원 (1회)  
\* 재료비 포함

강좌/강사/환불 안내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Since 1999  
Art In Culture



# 아트와 함께 서울대와 함께

서울대 미대 동문 정기구독 특전!

연간 구독료(180,000원) 20%할인(140,000원)

2026년 3월 31일까지

아트인컬처는 서울대 동문이 만듭니다.

구독문의: 02-797-2118 [subscription@artinculture.kr](mailto:subscription@artinculture.kr)

최영성  
정성현  
손동태  
공성준  
신서유  
최희옥

취임인사



‘한울회는 즐거운 동행이다’  
2026년부터 2년간 제22대 서울대 미대 여성동문회인 한울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 안말환(76회화) 인사드립니다.  
한울회는 1980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전과 초대전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제50회 정기전에 이르기까지 강산이 여러 번 변하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끌어주신 선대회장님들과 함께 해주신 회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울회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여성 작가들이 장르를 초월하여 ‘함께 하는 큰 울타리’라는 뜻으로 매년 여성 동문들의 축제의 장인 정기전을 하며 선후배 동문 간 세대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발족되었습니다. 한울회는 전업작가, 교수, 교사, 전시기획자, 갤러리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열정을 다하는 150여명의 동문들로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설치 미술 등 평면작품과 입체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업작가인 저는 전시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와 전시 경험을 적극 반영하여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한울회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행복한 작가활동을 계속하며 각자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다져놓은 튼튼한 기초 위에 한울회의 본 목적인 선후배 간의 친교와 전시 활동을 알차게 발전시켜 나가며 믿음직하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한울회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여성 동문 작가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힘이 되어주는 동문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작품활동 젊어지는 한울회! 젊은 후배 영입에 힘쓰겠습니다.

선대 회장님들의 신념을 이어 모든 회원님들이 한울회 회원인 것에 자긍심을 느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울회 회장 안말환

한울회 신임회장에 안말환 동문

한울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수담한정식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부회장 안말환 동문을 제22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앞으로 2년간(2026-2027) 한울회를 이끌어갈 신임 안회장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한 전업작가이다. 2025년 세종뮤지엄갤러리(서울), 네오아트센터(청주), 갤러리오로라(양산) 등에서 45여회의 개인전과 2025 Context Art Miami, LA Art Show, AAFHK, AAFSingapore, kiaf Seoul, 아트부산, 화랑미술제 등 150여회의 아트페어와 LonghuijingArtSpace(Shanghai), 서호미술관, 한전아트센터갤러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인사아트센터, 여주미술관, 성남아트센터 808갤러리, 등에서 450여회의 국내외 그룹전을 가졌다.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성남아트센터미술관, 남송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및 다수의 미술대전 심사를 했다.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안말환(76회화) 회장과 함께 2년(2026-2027) 동안 한울회를 위해 봉사할 임원진은 부회장 나성숙(71공예), 사무국장 서효숙(81서양), 재무간사 이종숙(82서양), 홍보간사 이정희(82조소)이다.



한편 서울대 미대 여성동문회인 한울회는 1980년 관훈미술관의 창립전을 시작으로 2025년 마루아트센터에서의 제49회 정기전(대작전)까지 매년 전시회를 개최해 왔다. 한울회 제50회 정기전은 오는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사아트센터 1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WOOL  
ARTISTS  
ASSOCIATION

한 울 회

2026년 신입회원 모집

서울대 미대 여성동문 환영합니다!

입회 문의

frebean@naver.com  
010-5466-4275(사무국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  
<http://snuhaa.com/home/>

회원광고

**2025 메세나대상 '대상' 수상 홍라희(63응미)**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이끄는 '2025 한국메세나대회'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5시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렸다. 2025년 메세나대상 시상식에서는 호암미술관과 리움미술관을 운영해온 삼성문화재단(이사장 홍라희)이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메세나대상 시상식'은 1999년부터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기업과 인물을 선정해 그 공로를 기념해온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대상인 삼성문화재단은 1965년 창립 이래 60년간 한국 예술계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1982년 국내 최초 사립미술관인 호암미술관을 개관해 국보급 소장품과



독창적인 전시를 선보였고, 2004년 개관한 리움미술관은 세계적 수준의 컬렉션과 기획전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미술관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고악기 대여 프로그램 '삼성 뮤직 펠로우십', 피아노 조율사 양성 과정인 '피아노 톤 마이스터 프로그램', 세계판소리협회 후원 등 클래식과 국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 지원 활동으로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한편 홍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했다.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및 호암미술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현대미술관회 회장을 맡았다.

**'한국소설문학상' 수상 박종규(69응미)**

박종규 동문의 단편소설 '블랙미러'가 제51회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지난 1월 28일 15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한국소설문학상은 한강, 한승원 부녀가 받은 상으로 알려져 있고, 정을병, 김홍신, 안장환 등 기라성 같은 소설가들이 수상자 목록에 오른 큰 상이다. 박동문의 수상작 '블랙미러'는 극한으로 치닫는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상적인 무대 장치에 올려놓고 이를 밀도 높게 그려낸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한편 박동



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했다. 전공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하다 뒤늦게 문학의 길에 나왔으며, 미술학도 출신답게 문장이 회화적이고 묘사가 정밀하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해리(Dissociation)', '굿바이 파리', '그날' 등이 있으며 '블랙미러'는 오는 3월 중 출간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특히 박제된 역사 동백림사건을 다룬 『굿바이 파리』는 역사적 기억과 개인적 서사를 섬세하게 엮은 역작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환경봉사대상 대상 수상 변영혜(78회화)**

지난해 12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계환경올림픽위원회(IEOC)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한국환경공단, 사단법인 월드그린연합이 후원한 제18회 대한민국 환경봉사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변동문이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공로 및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한류예술 부문에, 그간 성화로 섬기며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어 한류문화예술부문에서 봉사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변동문은 모교 회화과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



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목회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총 25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200여 회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1년 두란노서원에서 변동문의 성화작품들을 단독으로 수록한 우리말 성경 'THE BIBLE+'를 출간했다. 현재는 미국 뱀시모어대학교 해외부총장 및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성화로 보는 출애굽기 강해"를 강의하고 있으며 S-미술 아카데미 사군자 강사로 활동 중이다.

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목회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총 25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200여 회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1년 두란노서원에서 변동문의 성화작품들을 단독으로 수록한 우리말 성경 'THE BIBLE+'를 출간했다. 현재는 미국 뱀시모어대학교 해외부총장 및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성화로 보는 출애굽기 강해"를 강의하고 있으며 S-미술 아카데미 사군자 강사로 활동 중이다.

**'마지막 여우' 출간 유승희(82회화)**

유승희 동문이 지난해 12월 30일 단편집 '마지막 여우'를 출간했다. 유동문은 그동안 동화 속에 자주 등장하여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던 것처럼 느껴졌던 여우가 이제는 복원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유동문은 여우를 주인공으로 삼아 인간과 동물,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세 편의 판타지 단편으로 책을 꾸렸다. 책은 'S K F-2209', '마지막 여우', '네섬이' 총 3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여우'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선정도서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어린이책 삽화작가로 활동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넓은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밝히며 직접 동화를 쓰게 되었다. 대표 저서로는 '참개발 너구리', '지구 행성 보고서', '통팔팔 삼총사', '세아의 숲', '불편한 이웃' 등이 있다. 그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행복하게 살 길을 묻는다. 생생한 캐릭터와 빠른 전개, 뚜렷한 주제 의식으로 몰입도를 높이며 판타지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시립미술관에 작품기증 이동일(86동양)**

이동일 동문이 고향 정읍을 향한 깊은 애정과 예술적 나눔의 뜻을 담아, 자신의 애장 작품 26점을 정읍시립미술관에 기증했다. 이번 작품 기증은 단순한 소장품 이전을 넘어, 평생 예술에 매진해 온 이동문이 고향 시민들과 예술적 성취를 나누고자 한 진정성 있는 고향 사랑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정읍시는 이번 기증의 의미를 기려, 이동문에게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강미미 학예연구사는 "현재 시립미술관의 전시 일정이 이미 계획되어 있어, 기증 작품들은 2026년경 별도의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며 "작가의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한국적 재료와 독창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명, 대지의 순환을 깊이 있게 탐구해 온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닥종이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회화 기법으로 확장해, 장엄하면서도 포근한 자연의 기운을 화면에 담아내는 작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예정"이라며 "작가의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한국적 재료와 독창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명, 대지의 순환을 깊이 있게 탐구해 온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닥종이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회화 기법으로 확장해, 장엄하면서도 포근한 자연의 기운을 화면에 담아내는 작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2025 FRANZ RISING STAR AWARD' 수상 김승연(17공예)**

김승연 동문이 FRANZ 재단에서 시상하는 국제 아트세라믹 디자인에서 '2025 FRANZ RISING STAR AWARD'를 수상했다. FRANZ 라이징 스타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FRANZ AWARD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며 "디자인 공모전 자원이 소수의 수상자에게만 제공되어 대부분의 디자인 학생들이 상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피드백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FRANZ 라이징 스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도자



기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자기에 대한 동일한 비전과 이상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세대 사이에 지속적으로 도자기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를 위해 2020년 '퓨처 프라이즈'를 시작했으며 1등 상금은 20,000달러 상당이다. 김동문이 수상한 지난해의 주제는 '순간의 순간'이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공예과를 졸업했다.

정옥란(62응미)

단국대학교 공예학과 명예교수, 섬유예술가



정옥란 동문은 교육자 및 섬유예술계의 선구자로 칭해진다. 정동문의 작품 주제인 결(Waves) 대부분 논 피니토(미완성) 형식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여성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작품 대부분의 단색조는 자연과 순순히 순응하던 우리네 자연색을 나타내고 있고, 비정형적인 형태는 정동문의 자유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정동문은 79년 대학 강사 생활 10년을 보낸 후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파리 8대학 박사과정인 DEA 입학허가를 받고 파리 보자르 연수와 함께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귀국 후 여러 대학의 강사 기간을 거친 후 단국대 교수로 임용되었다. 학생 지도 및 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으며 교수 재직시절인 1990년 봄에 일본 교토의 精和(세이카)대학교 예술학부 교수이자 일본 섬유예술계의 대부인 조용웅(이하 우시오 다카오) 교수 초빙으로 일 년간 객원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정동문이 직접 우시오 교수에게 서신으로 초빙을 부탁했고 한국 섬유미술 분야 최초로 그 대학교 미술대학 전체 교수 회의를 통해서 초청받을 수 있었다.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방문

정동문은 1년간 객원교수 생활을 마치고 1991년 봄 일본에서 연구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귀국했다. 그는 한국 섬유미술계와 많은 후학과 제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다고 밝혔다. 정동문은 정년퇴임 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예가에게 주는 목양공예상 등을 수상하였다. 1993년 그는 학술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그는 당시의 여정을 힘든 여행이었지만 남들보다 일찍 러시아를 방문해 그곳의 문화를 빨리 알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가 회상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구 레닌그라드)의 첫인상은 프랑스 파리와 비슷했다. 그는 그곳에서 네바강변에서 멀리 보이는 페트로프스키 대성당, 오른편 뚜껑 같은 돔이 있는 이사크성당, 레닌공원, 톨스토이광장을 구경하고 그다음 날 에레미타주, 이삭성당, 피의 구원 사원, 카잔성당, 네브스키 거리, 키로프극장에서 백조의 호수를 관람하며 찬란한 러시아의 예술세계를 경험했다.

정동문은 한지를 이용한 그만의 섬유 직조기법으로 부조나 조각 같은 유례없는 작품을 제작하였고 한국 최초 리넨과 동선으로 된 CONTEMPORARY TAPESTRY 작품들, 리넨(LINEN)과 동선(COPPER WIRE)을 혼합 직조하여 빛과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부조 조형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벽에 걸 수 있는 MODERN TAPESTRY, 또는 공간을 장식하는 설치( INSTALLATION) 작품들을 창작하여 한국의 섬유 예술계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왼쪽부터 <WAVES 06-04>한지,황마사,2006. <WAVES 06-03>한지,황마,면테이프,2006. <FLEXIBILITY-2>1998

정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 재학시절부터 교수님들로부터 성실함을 인정받아 차기 지도자로서의 방향을 꿈꾸었다. 염직, 그래픽 등의 수업을 통해 기초를 다진 후 당시로서는 미래의 장르인 섬유예술을 전공하고자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경력을 쌓은 후(당시 모교에는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기 이전이었다) 10년의 강사 시절과 파리 유학시절에 그가 추구했던 섬유예술가로서의 발전을 이루어 낸 것이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와 홍익대 산미대학원 졸업 후 프랑스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 D.E.A(박사과정) 수료했으며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섬유미술



한전갤러리 전시 전경/ 갤러리현대 전시 전경

을 전공했다. 서울갤러리 현대, 교도 마로니에 갤러리, 오사카 21세기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로서 심사위원 및 공예분과 위원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또는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학 교육 발전과 대한민국 디자인 발전에 공헌해 국무총리 표창, 상공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또한 1996~2008년까지 한국 섬유비엔나레회 부회장, 1999년 한국전력공사 디자인 자문위원,

2016~2019년 서울대미대동창회 수석부회장, 2021-22년 모교 대표적인 동문회인 한울회 회장을 역임하며 예술가와 지도자적인 자질 외에도 사회적인 업무능력도 인정받았다. 2019-현재까지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미술대학과 타 대학 간의 소통과 교류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섬유예술가 정옥란 동문의 성실하고 도전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삶과 예술이 후배 예술가들에게 큰 귀감이 되리라 믿는다.

<http://blog.naver.com/orjung>



후원광고

일본 교토 마로니에 갤러리 전시

동문 인터뷰

전보림(93주소)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대표



미술전공의 계기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집에 있는 빈 종이에선 죄다 그림을 그렸다. 들키지 않으려고 잘 읽지 않는 책을 골라 그 속의 간지여까지 그림을 그릴 정도였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예중 입시를 준비했다. 그런데 그만 선화예중 입학시험

에서 떨어졌다. 이후에 오기가 생겨 고등학교는 서울예고에 지원하여 합격했다. 예고에 합격할 때까지 나의 유일한 미술선생님은 미대 동문이신 김춘욱 선생님이시다. 선생님 덕분에 틀에 박힌 입시미술대신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주소에서 건축으로 전공을 전환하게 된 계기

손에 닿는 흙의 감촉과 입체를 다룬다는 매력 때문에 예고 때 조소를 전공으로 선택했다. 입시에서도 운이 잘 따라 주어서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오랫동안 미술을 했다고 해서 예술가로서의 길로 저절로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뭐든 똑같이 그리고 만들어 내는 데는 선생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능했지만, 예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자칫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작업을 계속하는 일에는 영서툴렀다. 실용적인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성격 때문이었다. 그러던 차에 건축이 쓸모 있는 것을 만들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미술을 접목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바꾸게 되었다.

영국생활에서 경험하고 배운 점



도서 『익숙한 건축의 이유』

영국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시의 디테일이었다.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시의 시스템이 런던이라는 도시를 기꺼이 도시를 걷고 싶게 만들었다.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사는 서울에도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작년에 '익숙한 건축의 이유'라는 책을 썼다. 얼핏 보면 런던은 좋고 서울은 나쁘다고 읽힐 수도 있지만, 사실 서울을 조금 더 다정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애정으로 정성 들여 쓴 책이다. 모든 삽화를 직접 그렸다.



빠니갤러 전경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 프로젝트

한국에 돌아와서 사무실을 열고 도전한 첫 공모전에서 당선되어서 진행했던 울산의 매곡도서관 프로젝트가 힘들다는 점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마침 셋째 아이를 갖 낳아 키우면서 프로젝트를 해야 했기에 젓먹이를 데리고 울산으로 회의하러 다녔다. 다행히 여러 상을 받아서 사무실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프로젝트다. 가장 행복해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빠니갤러라는 의류회사의 사옥 프로젝트다. 클라이언트, 시공사 모두까지 한 팀이 되어 즐겁게 일했다. 나는 건축은 과정이라고 믿기에 과정이 좋은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고 사랑스럽다.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의 특징 및 지향점



과천상가주택 전경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매사에 진실하다는 자부심이 있다. 클라이언트, 시공사, 협업하는 타 분야 파트너들, 직원들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에도 늘 진심을 다한다. 그게 스스로를 괜찮은 건축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래서 설계부터 건축물의 준공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 온 클라이언트의 대부분과 관계가 좋은 편이다. 그리고 당장 반짝이기보다는 오래되어도 멋스러운 건축을 만들기 위해, 남들이 쉬이 가지 못했던 그 지점에 닿기 위해 때로 한심할 만큼 지난하게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글을 꾸준히 쓰는 것도 우리 아이디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대학 출신 건축가로서 스스로 정의하는 자신의 정체성

미적인 균형과 조화를 판단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기에 분명 설계할 때 이점이 있는 것 같다. 다만 건축은 단순히 미적인 외관에만 머무는 작업이 아니다. 수많은 분야와 조율을 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법적 제약, 그리고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가야 하는 복잡다단한 과정이다. 그 모든 작업의 지휘자이자 진행자가 건축가다. 나는 다행히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고 복잡한 문제의 답을 찾는 걸 즐기는 편이라 건축가의 역할이 잘 맞는 편이라고 느끼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

요 몇 년간 큰 회사의 일을 하면서 일의 성격과 범위가 많이 변화했다. 예전보다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지적으로 고되고 고민되는 지점도 많은 것 같다. 일에 몰두하다보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심신이 건강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

전공 선택이나 전환을 고민하는 모교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올드 반 야드 전경

학교에서 접하는 전공과 사회에서 겪는 직업으로서의 전공의 일은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공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직업 경험을 하길 바란다. 건축과만 해도 건축가가 그림만 그리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졸업하는 학생도 많다.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그린 생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졸업 후 실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까지 미리 공부해야 한다.

동창회와 선후배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예술가로서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동창들을 보면 늘 존경의 마음이 든다. 우리나라에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에 대학의 교수가 되지 않는 한 작업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하기가 너무도 힘든 것 같다. 그래도 서울대 동창회 동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분들 아닌가? 부디 예술가의 작업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부 지원 사업마저 작업에 드는 재료비나 대관료만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슬프다 못해 화가 났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예술가의 길을 가지 못했지만, 예술은 실용적인 것이 만들지 못하는 경지의 힘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예술가 동문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마당 임충섭(60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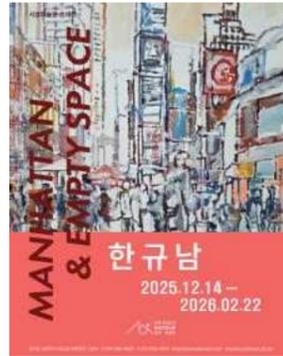
임충섭 동문의 개인전 '마당'이 지난 1월 8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뉴욕에 위치한 SHIN GALLERY에서 열린다. 그동안 전통과 현대 사이의 경계를 탐구해온 임동문은 뉴욕의 길거리를 산책하며 발견한 버려진 자전거 안장, 끊어진 운동화 끈, 낙엽 등에 색을 칠하고 조각하고 나열해 아상 블라주 작품을 만들어왔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임동문은 졸업 후 뉴욕으로 이주했다. 뉴욕 아트스튜던트리그를 수료하고 브루클린공예대 석사 및 뉴욕대학교에서 석



사 학위를 취득했다. 광주 비엔날레, 서울 국제갤러리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 우경문화예술상, 메리월쉬사아프예술재단 스페이스프로그램 수상 경력이 있다. 그의 작품은 메트로폴리탄뮤지엄, 허시훈미술관 조각정원,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MANHATTAN & EMPTY SPACE 한규남(63회화)**

한규남 동문의 초대전 'MANHATTAN & EMPTY SPACE'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오는 2월 22일까지 서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동서양 미술 기법의 접목을 주요 테마로 작업하는 한동문이 '맨해튼 거리'의 풍경을 동양적 여백과 서법으로 재해석한 작품 11점이 전시된다. 그는 맨해튼 거리 풍경의 도시 구조와 리듬,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흔적을 화면 위에 재구성한다. 한동문의 작품들은 동양 산수화의 삼원법과 서양 회화의 선원근법



을 결합한 공간 표현을 시도하며, 서구적 재료와 동양화의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 속에서는 점·선·그리드(grid) 등 기하학적 요소를 통해 도시 풍경, 문화적 기억과 내면적 성찰이 표현된다. 한편 한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를 취득하고 뉴욕, 마이애미, 서울, 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작품 전시를 연 바 있다.

**내일을 기다리며 손희옥(68회화)**

손희옥 동문의 개인전 '내일을 기다리며'가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여의도 대한민국국회 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손동문의 '내일' 연작을 중심으로, 먹의 깊은 어둠과 코발트블루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시련 이후에 찾아오는 희망과 생명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그는 먹을 여러 겹 쌓아 올려 깊이와 무게감을 형성하고, 그 위에 코발트블루를 과감하게 배치함으로써 정적과 역동,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이번 작품들은 겨울 내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다 봄이 되어서야 싹을 틔우는 버들의 생



명력을 주요 모티프로 삼았다. 손동문은 "겨울을 견디는 시간은 고통과 침묵의 연속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빛과 환희의 순간이 찾아온다"며, 화면 속 한 줄기 싹은 자연의 순환을 넘어 인간 존재가 겪는 인내와 회복의 은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동문은 모교 회화과(동양화 전공)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개인전 및 아트페어에 12회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미술대학 강사를 역임했다.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서울대학교, 예술의 전당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손희옥 개인전

# 내일을 기다리며

-꿈,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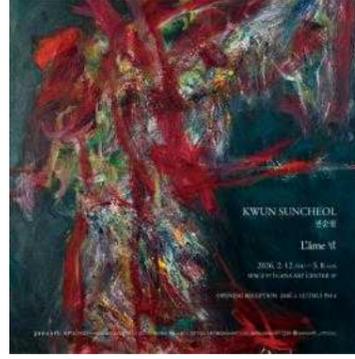
2026.2.2  
— 2.13

대한민국국회 아트갤러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T. 02-6788-4798  
Open 9:00 - 18:00  
\*일요일·공휴일 휴무

**응시, 형상 너머 권순철(64회화)**

권순철 동문의 초대전 '응시, 형상 너머'가 지난 2월 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김종영미술관에서 열린다. 권동문은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60여 년을 인물과 산을 소재로 작업해 왔다. 또한 근 40년을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의 인물화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서 겪은 6·25 동란의 상흔의 승화와 시대적 과제인 우리 모습에 대한 탐구에서 비롯했다. 김종영미술관 관계자는 "60년 화업(畫業)은 요컨대 우리의 형상 넘어 참모습을 찾아간 여정이라 하겠으며, 궁극에는 자신을 찾아 나선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림 속 인물



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갤러리 가나 보부르(프랑스), 현대미술관(프랑스), 두산갤러리(대구), 가나아트센터(서울), 가나아트 뉴욕(뉴욕)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세종문화회관, 경남도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몽파르나스미술관 등에서 단체전을 열었다. 1992년 4회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형진식 특별기획초대전 형진식(69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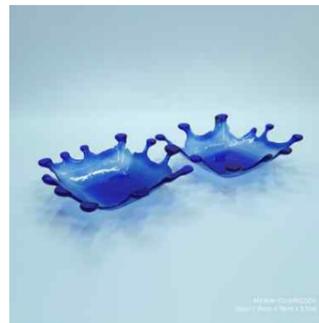
형진식 동문의 특별기획초대전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월 22일까지 서울 중구 갤러리315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종이와 캔버스 위에 드러나는 자유로운 선과 색, 붙이고 뜯어내는 물질적 실험을 통해 '공간'에 대한 작가의 집요한 탐구가 드러났다. 화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드로잉과 채색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실제 공간과 맞닿은 조형 실험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형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석사 학위를 받



았다.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및 미술부장을 역임하며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현장을 지켜온 원로 작가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소마미술관, 호암미술관 등 국내 주요 미술관과 해외 컬렉션에 소장돼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나오미군지(86동양)**

나오미 군지 동문의 개인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가 지난 1월 28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크래프트 온 더 힐에서 열린다. 나오미 동문에게 창작은 단순히 시각적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지독한 고뇌와 사랑을 땅에 심고 가꾸는 '농사'와 같다. 캔버스 위에는 유화의 묵직한 물성이 산소를 머금고 단단해진 시간의 층위가 흐른다. '산란하는 빛'은 도자와 유리의 투명한 몸체를 통과하여, '그레이'의 실체를 드러낸다. 나오미 동문은 "이는 단순한



회색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이 뒤섞여 무아지경에 이르는 찰나의 색이자,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공(空)의 세계"입니다."라며 "인간의 나약함과 파멸을 걱정하면서도, 결국 기적은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 막막한 질문 끝에 건네는 따뜻한 소통의 손길이며 겹겹이 쌓인 빛의 층위 사이에서 각자가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신뢰와 마주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밤과 낮 그 사이 김진경(82응미)**

김진경 동문의 개인전 '밤과 낮 그 사이'가 지난 2월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갤러리 이즈에서 열린다. 김동문의 작가노트에 따르면 그는 '난 근 몇 년을 연로하고 병든 부모님이 하루하루 스러져가시는 모습에 자주 당황하고 허둥지둥 보내며 안타까워하면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과 한꺼번에 老病死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물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감각을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아가려는 태도에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작은 마당에서 잡초를 뽑거나 땅을 파 무언가를 심는 등의 조용한 노동의 시간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계



절을 보내며 문득 변화하는 감각이 매일 신기하고 감탄스러웠던 그가 그림과 글과 음악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했다. 갤러리 이즈, 세종호텔 세종갤러리, 갤러리 다솜, 갤러리 디반 등에서 9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예술의 전당, 정수갤러리, 가나인사아트센터 등에서 단체전을 40여회 가졌다. 현재는 그룹터, 창미회, 한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후원광고

## 김진경 | 아홉번째 개인전

# 밤과 낮 그 사이

2026.2.18(수)-2.2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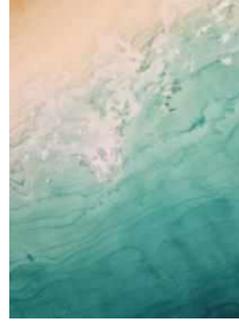
gallery **is**  
갤러리 이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52-1 갤러리 이즈 제1전시장 (1F)

T. 02. 736. 6669  
Open 10am - 7pm

**선망의 경계 파도에 닿는 가장 느린 존재 김초윤(03동양)**

김초윤 동문의 개인전 '선망의 경계 파도에 닿는 가장 느린 존재'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아트레온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바다와 모래, 파도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의 순간을 반복적으로 포착한 연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동문은 그동안 '선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도달과 욕망, 방향성과 이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아닌, 도달 이후에 남겨진 감각과 태도에 집중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경계에 머무르며 바라보는 느린 시선을 통해, 그는 속도의 시대에 대한 조용한 저항을 시도했다. 이번 전시에는 바다와 모래, 파도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의 순간을 반복적으로 포착한 연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김동문은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을 통해 파도가 밀려오고 사라지는 찰나를 화면 위에 겹겹이 축적하며,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쉽게 지워지는 순간들을 붙잡아 두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Between Misaligned Landscapes 채지민(03서양)**

채지민 동문의 개인전 'Between Misaligned Landscapes'가 일본 도쿄 긴자 츠타야 북스에서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긴자식스 내의 츠타야 (TSUTAYA) 북스는 책, 예술,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읽고 보고 머무는 경험을 통해 동시대 문화예술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채동문은 이번 전시를 통해 평면회화가 지닌 한계를 제약이 아닌 가능성으로 다시 치환한 신작 회화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아뜰리에 아키의 김은경 대표는 "채지민 작가는 국내



는 물론 국제 미술계와 문화계에서 지속적으로 초대전 제의와 각종 프로젝트 제안이 이어지는 등 작업의 독창성이 주목받으며 K-아트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 첼시대학교에서 서양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그간 런던 그리핀갤러리, 상하이 KCI 아트센터, 뉴욕 아트모라갤러리, 서울 아뜰리에 아키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미래에서 온 소녀 최영빈(03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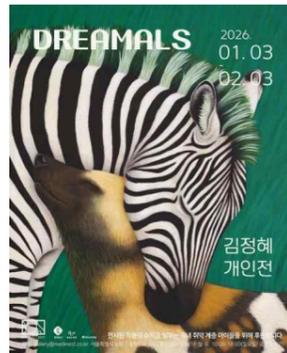
최영빈 동문의 개인전 '미래에서 온 소녀'가 PLACEMAK2에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열렸다. 최동문의 작업은 20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시간의 축적 위에 놓여 있다. 20여 년이 넘는 회화의 여정 속에서 그는 무척 다채롭고 도약적인 시도를 지속해 왔다. 최동문의 그림들은 매우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페인팅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느껴졌던 것은 그리기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라는 문제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이 아닌 개인적이고도 아주 내밀한 방식으로 드러내려는 태도이다. 그런 모습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답에 자신을 수렴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것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도 간절한 이야기를 내면의 치열함 속에서 표현하려는 고군분투처럼 보인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대학원 회화 및 드로잉 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모교 서양화 판화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DREAMALS 김정혜(04서양)**

김정혜 동문의 개인전 'DREAMALS'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BGN갤러리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동물을 주요 소재로 작업해온 작가로, 그의 작품 속 동물들은 모두 눈을 감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뜨거운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차가운 눈과 얼음 속에서도 꽃밭을,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서도 하늘을 꿈꾸는 동물들은 김동문이 상상한 평안한 세계를 상징한다. 작품에서는 사자와 양, 호랑이와 사슴처럼 본래 쫓고 쫓기는 관계에 놓인 동물들이 서로를 안거나 기대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는 갈등과 경계가



사라진 공간, 더 이상 서로를 위협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 대한 김동문의 바람을 시각화한 것이다. 동물의 털이나 갈기 일부를 식물처럼 표현한 요소 역시 평안과 사랑, 평화의 감정이 자라나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다. 건축과 회화를 아우르는 배경을 바탕으로, 공간감 있는 조형 구성과 섬세한 회화 표현이 결합된 작업 세계를 구축해왔다.

**Neo-Animism 오세린(05동양)**

오세린 동문과 장세린 작가의 2인전 'Neo-Animism'이 지난 1월 3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더씨드에서 열린다. 오동문의 조각은 자본주의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난 사물들에서 출발한다. 한때 욕망의 대상이었으나 기능과 가치가 소멸된 채 남겨진 존재들을 원본으로 삼아 슬립 캐스팅과 왁스 캐스팅이라는 대량생산 기법을 통해 도자와 황동으로 다시 복제한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 및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동대학원 금속공예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OUNDRY SEOUL, 세움아트스페이스, 경남도립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산업예술헌비엔날레, 서울공예박물관, N/A, 씨알컬렉티브, 공간파도 등에서 열린 단체전과 스크리닝에 참여했다. 중국 타오슈찬 아트센터, K-ARTS 창작스튜디오, 예술지구\_p 입주작가로 선정되었으며,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푸른문화재단, 중국 타오슈찬 아트센터 등에 소장되어 있다.

**먼지를 걷는 자들 권현빈(10조소) 외**

권현빈 동문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한갤러리가 개최한 '먼지를 걷는 자들'에 박광수, 오제성, 한우리 작가와 함께 참가했다. 신한갤러리 큐레이터는 "<먼지를 걷는 자들>은 흩어졌다 집적되는 먼지의 물성과 행위성을 떠올리며 전시의 궤적을 따라 비선형적으로 겹겹이 축적된 작업의 층위를 걷는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시간과 장소는 먼지 위에 퇴적된 감각의 흔적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 작가는 그 흔적들을 발굴, 예측하지 못한 새로



운 풍경과 상상의 내러티브로 전시장에 유의미한 현재를 만든다"고 전했다. 권동문은 돌을 주재료로 작업하며 연마, 쪼개기, 새김, 물감의 스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면적인 돌의 물성 너머에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과 내재된 감각, 정서와 같은 비가시적인 요소들을 환기시킨다. 권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한 뒤 레인보우큐브갤러리, 에이라운지, 모노하, 기체, 두산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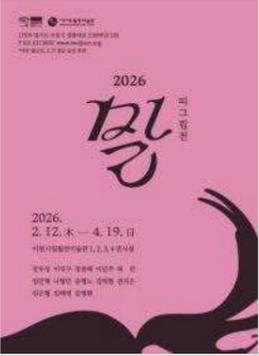
2월의 전시



**2면 / 2시점**  
윤성진(72조소)  
2.27-4.4  
갤러리 J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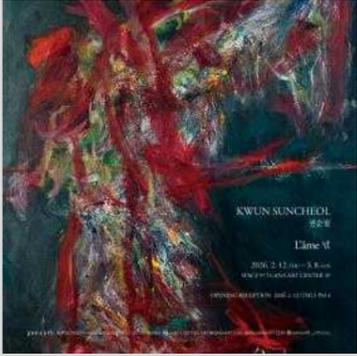
**밤과 낮 그 사이**  
김진경(82응미)  
2.18-2.24  
갤러리이즈



**말띠 그림전**  
장우성(교원) 외  
2.12-4.19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수면으로부터**  
국동완(00시다)  
2.11-3.14  
디스위켄드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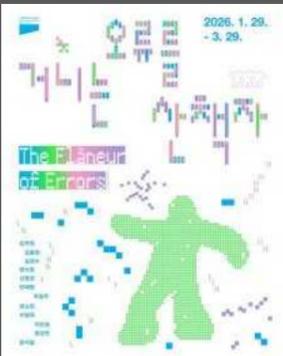
**응시, 형상 너머**  
권순철(64회화)  
2.6-3.29  
김종영미술관



**우모레기**  
안중우(석25동양)  
2.4-22  
도로시살롱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  
김방주(06동양) 외  
1.30-5.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오류를 거니는 산책자**  
신정균(05서양) 외  
1.29-3.29  
서울대학교미술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나오미군지(86동양)  
1.28-2.21  
Crafts on the hill



**Neo-Animism**  
오세린(05동양)  
1.20-2.28  
더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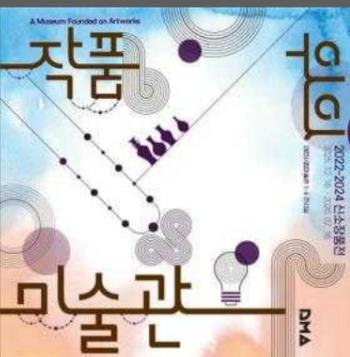
**마당**  
임충섭(60회화)  
1.8-2.21  
SHIN GALLERY



**Blurs**  
김정아·빈지영·오경원(17서양)  
1.8-2.18  
오우도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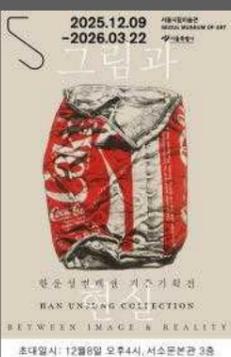
**드라마**  
서상익(97서양) 외  
25.12.17-26.3.22  
미메시스아트뮤지엄



**작품 위의 미술관**  
안규철(73조소) 외  
25.12.16-26.2.18  
대전시립미술관



**MANHATTAN & EMPTY SPACE**  
한규남(63회화)  
25.12.14-26.2.22  
서호미술관



**그림과 현실**  
한운성(65서양)  
25.12.9-26.3.22  
서울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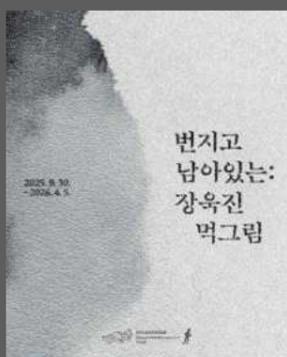
**형상의 울림**  
김종학(56회화) 외  
25.12.5-26.3.1  
광주시립미술관



**작은 것으로부터**  
김나영(84조소) 외  
25.11.19-26.2.22  
경기도미술관



**꽃은 꿀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양혜규(90조소) 외  
25.11.8-26.3.31  
상해당대예술박물관



**번지고 남아있는: 장욱진 먹그림**  
장욱진(교원)  
25.9.30-26.4.5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